



##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7일 화요일 음 6월 5일 (12물)

### 기상정보



### 구름 조금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고온에 높은 습도로 인해 불쾌지수와 열지수가 높아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 오 전 | 강 수 확 률 | 오 후 |
|-----|---------|-----|
| 10% | 제 주     | 10% |
| 10% | 성 산     | 10% |
| 10% | 고 산     | 10% |
| 10% | 서귀포     | 10% |

|             |           |
|-------------|-----------|
| 해돋이 05:36   | 달뜨기 10:00 |
| 해질 19:44    | 달짐 23:00  |
| 물때 만조 01:42 | 간조 08:19  |
| 13:43       | 20:18     |

### 주간예보

|    |       |        |
|----|-------|--------|
| 내일 | 구름 조금 | 25/31℃ |
| 모레 | 구름 조금 | 25/33℃ |

### 생활·안전 기상정보

|       |       |
|-------|-------|
| 자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 매우 높음 | 주의    |



## 월드뉴스

## 엘리자베스 여왕 혼자 트럼프 만나

### “매우 이례적인 일” 지적

찰스 왕세자와 윌리엄 왕세손은 영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혼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현지 언론은 이 같은 풍경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세자와 왕세손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 만남을 회피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이라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영국 총리실과 버킹엄 궁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방문을 한 게 아니라서 여왕 단독으로 트럼프 부부를 맞이하는 계획만 수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식 해명과 영국 정가 소식통의 견해는 달랐다고 더타임스는 보도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왕실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왕의 회동에 누가 참석할지 논의가 있었다.



엘리자베스(사진 왼쪽) 영국 여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들 관계자는 찰스 왕세자와 윌리엄 왕세손이 만남을 꺼리는 탓에 집단으로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왕세자 등이 트럼프 접견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모욕”이라며 “왕세자 등은 딱 잘라 참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왕 혼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여왕이 누구를 접견할 때 옆에 꼭 누가 있기 마련이며 최근 들어 찰스 왕세자가 필립 공을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 한라칼럼



### 김 병 준

논설위원

관광은 무공해 산업으로 효자산업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도 고용이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어서 여전히 각광받고 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관광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다. 제주관광도 1차산업과 함께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관광에 위기를 알리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숫자놀음’에 빠졌던 제주관광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제주관광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5월 ‘제주지역 내국인 관광

## 갑갑한 제주관광

객 증가세 둔화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은 2010~2017년까지 연평균 10.3% 늘면서 제주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제 올해 3~4월에는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5%로 현격하게 둔화됐다. 제주를 찾은 내국인이 많아지면서 제주여행 수요가 임계치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국인의 제주관광 수요가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도 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 3월 밝힌 ‘2017년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가 그것이다.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의 제주 재방문율과 평균 체류일수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분명 제주관광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내국인의 여행경험과 여행계획 역시 죄다 국내는 줄고 해외는 늘고 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등이 올해 1~5월 매주 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에서 나타났다. 국내여행 경험률(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은 66.2%로 지난해 같은 기간(69.1%)보다 2.9%p

하락했다. 반면 해외여행 경험률은 지난해 26.3%에서 올해 28.2%로 1.9%p 뛰었다. 여행계획률(향후 3개월내 1박 이상)도 국내여행은 70%로 지난해 동기 대비 3%p 떨어졌으나 해외여행은 36.3%로 0.8%p 높아졌다.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경우 제주관광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제주관광은 ‘손님 수’를 늘리는데 급급해 왔다. 그 결과 주택난·환경난·교통난 등 각종 부작용만 불렀다. 특히 환경난은 쓰레기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쓰레기는 자체 처리를 못해 계속 쌓이면서 쓰레기섬으로 변하고 있다. 하수시설도 과부하에 걸린지 오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한 무사증(무비자)제도는 밀입국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누적된 불법체류자가 1만명을 넘었다. 무사증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치안이 위협받으면서 도민들의 불안감

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주관광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답은 나와 있다. 지금까지 ‘양적 성장’으로 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제주경제가 관광산업 덕분에 크게 성장했지만 도민소득은 부끄러울 정도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제주지역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424만원)와는 178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특히 잘 나가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형편없다. 제주관광이 호황을 누리면 뭋하는가. 지난해 제주관광의 최대 수혜자는 면세점이다. 제주는 곶(제주)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대기업)이 챙기고 있다. 이러니 제주관광이 무슨 수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는가. 제주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은 제주관광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제주관광이 이대로 가선 미래가 없다.

## 열린마당

## 주민 손으로 만드는 살맛나는 복지마을



### 이 맹 현

서귀포시 안덕면 부면장

안덕면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정과 지역 주민이 손을 잡고 살맛나는 복지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다름 아닌 ‘좋은 이웃,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는 농촌지역의 빈집(폐가)를 활용하여, 개보수 과정을 거쳐 ‘안덕 사랑의 집’으로 재탄생시켜 일정기간 저소득층에게 임대(무료)주택으로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특화사업이다.

이번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별 빈집을 찾고, (재)방주에서 빈집 리모델링을 주관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빈집 정비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빈집 정비 후 세탁기, TV 등의

소규모 생활가전은 기부금을 활용하여 마련할 계획이며, 빈집을 제공하는 집주인의 도움으로 개보수 및 주택 관리를 조건으로 3년간 세입자의 무료주거를 보장해주는 좋은 이웃이 되어줄 것을 약속받아 추진될 예정이다.

안덕면에 2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지원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8월부터 입주예정자를 모집,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을 받아 12월 중으로 첫1호 입주자가 탄생할 예정이며 2018년 3가구, 2019년 5가구, 2020년 10가구 지원을 자체 목표로 세웠다.

또한 안덕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독거노인, 장애인, 장애인, 중장년 고위험군가구 등 50여 가구를 대상으로 1:1 이웃사촌 결연 맺어 정기적으로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모니터 활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시책들이 바로 복지기관·민간·단체·행정이 서로 손을 맞 잡고 지역의 복지 취약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자, ‘주민의 손으로 살맛나는 복지마을’을 만들어 가는 진정한 민관협력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직개편 목표는 도민 중심, 도민 행복



### 김 창 세

제주도 조직통계담당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도민사회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통 확대’, ‘공직 혁신’, ‘도민과의 약속 실천’, ‘행정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제주형 협치’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는 도민 중심, 도민행복이다. 도민 소통의 양과 질을 넓혀 정책에 반영하고, 공직을 혁신하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현재까지 공무원 425명이 늘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13.4%지만 제주도는 8.2% 증가했다. 업무별 증가 인원을 보면 소방 223명, 사회복지 123명, 안전분야 79명 등으로 대부분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무원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타 시·

도에 없는 자치경찰단 신설(127명)과 고용센터 등 7개 국가기관 제주 이관(140명)에 따라 267명의 공무원이 제주도로 편입됐고, 4537건의 중앙사무도 제주도로 이양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제주의 환경변화도 크다. 인구, 관광객,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민원처리 등 일반 행정 분야에 대한 인력은 과도할 만큼 긴축운영을 해 왔다. 3급 이상 공무원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23명에서 22명으로 1명이 줄었다. 3급 이상 공무원 증가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감사위원회, 노동위원회 신설 및 행정시 부시장 직급이 상향 조정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공무원 수를 늘려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추후도 없다. 단지 효율적인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지 고민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업무의 비중을 따라 과에 편제된 팀을 수시로 변경 운영할 수 있는 자율팀제를 시험 운영한다.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공단,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립과 연계하여 공무원 조직과 인원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17-20-02호

# 감귤요목

## 장마철 식재

|           |       |
|-----------|-------|
| 성 전       | 3년생   |
| 황 금 향     | 3,4년생 |
| 감 평(레드향)  | 4년생   |
| 천 혜 향     | 3,4년생 |
| 유 라(극조생)  | 4년생   |
| 일남1호(극조생) | 5년생   |
| 한 라 봉     | 3년생   |

#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3년생)

|                        |         |
|------------------------|---------|
| • 하례조생                 | 1년생     |
| • 유라실생                 | 1년생     |
| • 윈터프린스                | 1년생     |
| • 남진해(나스미)             | 1년생     |
| • 한라봉(마나베데고)           | 4년생     |
| • 일남1호, 히로시마7호(극조생)    | 4년생     |
| • 블러드 오렌지 (다로코) 기능성 밀감 | 4년생     |
| • 천전(가와다) 온주           | 천지향 5년생 |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종은 직접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 서귀종묘

010-6677-5753

# 감귤 신품종 분양

2019년 봄 출하 예정 묘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레몬

아마나스 · 망유자 · 아수미

조 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농장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요소에서 모출포항향 300m 위치)

종자업 등록번호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국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도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